



"수풀엿 꺾은 개가 내몰고 오장엿 말은 술이 내몬다"

뜻: 술을 마시고 취하면, 마음속에 꼭 숨겨두었던 비밀이나 진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본심 · 술 · 실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수	풀	엿	꺾	은	개	가	내	몰	고
오	장	엿	말	은	술	이	내	몬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수	풀	엿	꺾	은	개	가	내	몰	고
오	장	엿	말	은	술	이	내	몬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수풀엿] [꺾은] [개가] [내몰고] [오장엿] [말은] [술이] [내몬다]

웹에서 보기

